

내년 총선 8개월 앞으로...

여야 비주류 활동 반경 확대

국힘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꼴통'... 홍준표, 연일 성도
민주 이재명-이낙연 회동 후 온도차 확인... 공천률 '뇌관'
무당층 30%대로 양당 지지율 맞먹어... 제3신당 가능성 높아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내 계파 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평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무당층이 양당 지지율을 맞먹는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어 비주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 비윤(비윤석열)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준비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날 말 정책 토론에 초점을 맞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했다.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부인한 뒤 총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권 정지 이후에도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호우경보가 내린 상황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 연대해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당내 역량은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불씨는 살아있다. 당 혁신위가 이달 말께 제안할 예정인 공천 혁신안이 뇌관이 될 수 있다. 혁신위의 공천률 변경이 비명계, 소위 대선 의원 중심의 처내기 내용들이 나오면 갈등이 다시 분출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왔지만 올해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당층 비율은 30%(한국갤럽)를 유지 중으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3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양당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의 무당층은 무려 53%로 나왔고 30대도 40%를 훌쩍 넘었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좋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제3세력 비주류의 활동 폭이 이처럼 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무당층의 규모가 커질수록 제3신당을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현역과 잠룡들이 너무 많아 제3당 가능성이 있고, 국힘은 계파 갈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문으로 흐르고 검사 출신들에 공천을 주면 현역들이 탈락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계파 갈등이 총선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게 관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 2 회 청소년을 위한

2023. 8. 1 ~ 8. 6

2023 Summer Music camp Concert Foru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전주매일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를”

민주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울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울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중구 농림부 유용소 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원,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0에서 11만 6450으로 약 5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호영 의원은 "불계정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지난달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 증량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 증량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톤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원 의원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톤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뽕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성 완주군의원 의원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가 가격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 생산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중구 농식품부 유용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과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잭퍼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시·도의회위원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기서 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시도의회위원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 미래산업 이끄는 허브 되도록”

도의회, 시도의회위원장 부안에 초청 시도의회협 정기회 개최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잭퍼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시·도의회위원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의회위원장을 비롯해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기서 전북도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협의회 18대 하반기 회장 선출 잭퍼리 개영식 참가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새만금에서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세계 잭퍼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가하는 세계 잭퍼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이 준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위원장을 구성원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 내실화를 위해 대정부 및 국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오늘 대한노인회 방문 사과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충북도청 오송참사 분향소 조문 및 유가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노인회 회원분들, 또 어르신들께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아뵙고 충분히 소통하겠다. 오늘은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오전 중이라도 찾아뵙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